

# 물의 축제 송끄란

글 | 김주영

그림 | 처꿍

글 | 김주영

그림 | 처꿍 (Chorkung - ជំកុង)

편집 | 김은파, 이수인

편집 디자인 | 이혜명

베트남어 번역 | 황티장

중국어 번역 | Wenting Du, 교정: 이흠

영어 번역 | Jennifer An

태국어 번역 | 김주영, 감수: 분타리까 너이씨 (ບຸນທະຮິກາ ນ້ອຍສີ), 교정: 채혜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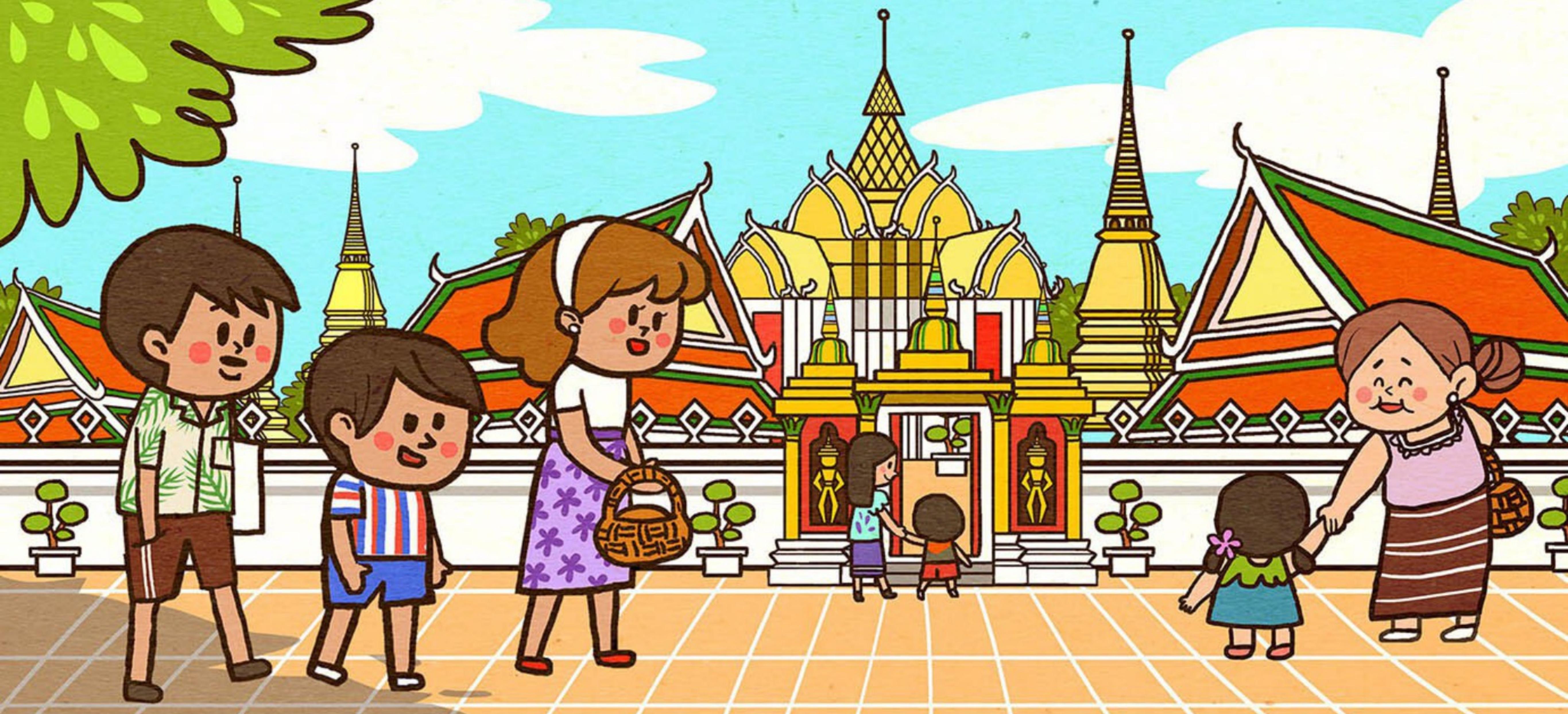
목소리 | 한국어: 윤성혜, 베트남어: 레 쑤언 비, 중국어: 곡효여,

영어: 제인 페인터, 태국어: 폐와 떼차마하몽콘





태국의 설 ‘송끄란’은 4월 13일부터 15일이에요. 옛날 태국 사람들은 하늘의 해와 별을 보고 새해의 시작을 정했어요. 지금은 1월 1일도 설날로 생각하지만, 4월의 송끄란이 더 중요한 설날이고 가장 큰 명절이에요.



송끄란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특히 태국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절에 가서 하는 활동이 많아요. 방콕에 사는 파유도 송끄란을 맞아 아침 일찍부터 절에 가는 길이에요.



많은 태국 사람들처럼 파유 부모님도 아침마다 스님에게 시주를 해요.  
시주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물건을 드리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파유네 가족은 직접 절에 찾아가  
시주하기로 한 것이지요.



절에 도착하면 먼저 불상 앞에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해요. 스님들이  
새벽부터 불상을 새 옷으로 갈아입혔기 때문에 아주 깨끗했어요. 파유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며 부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끝난 후 집에서 가져온 음식과 여러 가지 물건을 스님에게 드렸어요. 스님은 파유와 가족들의 머리 위에 향기 나는 성수를 뿌리며 축복해 주었어요.



이번에는 파유가 부모님과 함께 성수를 여러 불상에 조금씩 부었어요.  
불상에 성수를 붓는 것은 새해를 맞이해 불상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절 안쪽에 있는 불탑 옆에 바깥에서 가져온 모래를 부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모래로 작은 불탑을 쌓고 꽃으로 예쁘게 장식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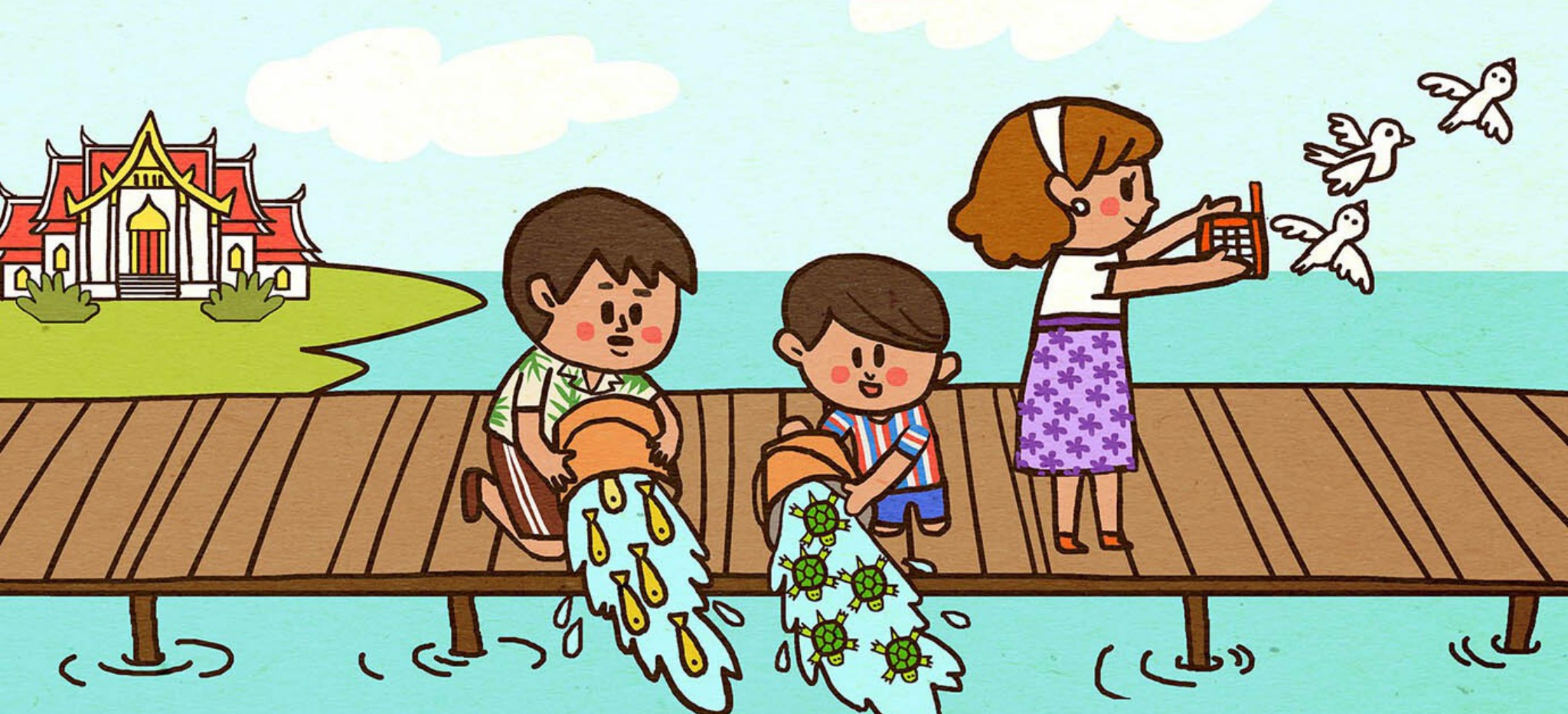
파유는 사람들이 왜 모래를 절에 가져온 건지 궁금했어요.



부모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어요. “평소에 사람들이 절에 왔다 돌아갈 때 발바닥에 묻은 모래를 자기도 모르게 절 밖으로 가지고 나갔었단다. 그래서 모래를 다시 절에 돌려준다는 뜻으로 가져오는 거야.”



집에 돌아가기 전 파유네 가족은 동물을 방생하기로 했어요. 사람에게  
잡힌 동물을 강이나 하늘에 놓아주는 것을 방생이라고 해요. 태국  
사람들은 동물을 놓아주면 이전에 지은 죄도 함께 떠난다고 믿어요.



파유는 절 옆에 있는 시장에서 작고 귀여운 거북이를 샀어요. 부모님은 물고기와 새를 샀어요. 거북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집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거북이와 물고기는 강에, 새는 하늘에 방생했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 보니 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물을 뿌리며 송끄란을 즐기고 있었어요. 파유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물을 뿌릴 준비를 했어요. 축제 때 입는 화려한 꽃무늬 옷을 입고 차가운 물을 가득 담은 물총도 챙겼어요. 태국에서 가장 더운 4월이라 날씨가 무척 더웠지만 파유는 신이 났어요.



사람들은 파유처럼 물총을 쏘기도 하고 바가지로 물을 퍼서 뿌리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트럭 짐칸에 올라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뿌리기도 했어요. 파유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었어요. 송끄란 축제를 즐기러 태국으로 여행을 온 외국인 친구들과도 함께 즐겁게 놀았어요.



원래 송끄란 때 물을 뿌리는 것은 새해를 맞아 나쁜 것을 씻어내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뜻에서 시작된 물 뿌리기는 이제 송끄란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행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송끄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 축제가 되었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송끄란에는 의미 있고 재미 있는 일들이 아주 많아요.  
송끄란은 태국 사람인 파유네 가족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에게도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는 모두의 축제예요!

“물의 축제 송끄란”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